

# ESG Wannabe

SK증권 스마트시티추진실  
정유/화학 박한샘. 3773-8477



## 늘어나는 Drilling Activity?, 병행되는 ESG Activ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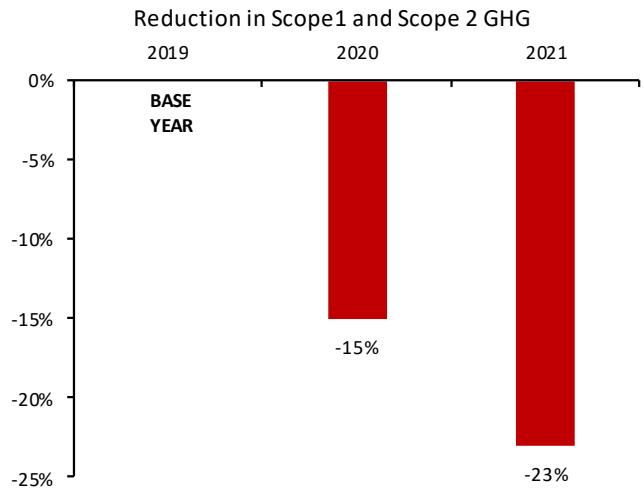
### ● 환경을 보완해 나가는 유전서비스 업체들

- 유가가 \$100/bbl에 도달하는 등 고유가 레벨이 지속됨에 따라 이전 보다 원유 시추 관련 업체들의 역할이 부상하였음. 다만, ESG 중 환경 강화라는 흐름과 상충한다는 점에서 이슈가 제기되기도 하였음
- 결과론적으로 코로나 이후의 생산량 회복 및 고유가 환경이 겹치면서 미국의 Oil Rig count는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음. 페르미안, 이글포드 등 주요지역 7개를 합산한 개수는 약 670개(7월)로 코로나 이전 수준에 근접
- 반면, Rig 당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부진해 미국의 산유량은 약 12.2 백만b/d을 기록. 코로나 이전인 13백만 b/d에는 미달. 이전 대비해서 DUC(Drilled but Uncompleted Well)이 추세적으로 줄어든 점도 물량확대에 부담
- 산유량의 증대는 더디 편이나 Rig 수 확대를 통한 원유 생산량 회복은 추세적으로 유효할 전망. 다만, 이것이 단순히 ESG를 역행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판단. 대표 기업인 베이커 휴즈 등은 환경 강화 활동을 병행 중
- 베이커 휴즈는 Oilfield Service(21년 매출 비중 약 46%), Oilfield 장비(12%) 관련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음
- 베이커 휴즈는 에너지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'19년 15% → '21년 24%로 확대해 2019년 대비해서 GHG Scope1+2(직간접) 배출량을 약 -23% 가까이 축소시켰음. 동종 슬럼버거도 GHG를 동 기간 약 -37% 감축
- ESG 강화가 단순 유전서비스 및 원유 생산의 쇠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밸류체인 내 GHG 감축으로 선행될 전망

미국 주요 7개 지역 Rig 개수



베이커 휴즈 Scope 1+ 2 GHG 감축





## Compliance Notice

-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당사는 본 보고서의 발간시점에 해당종목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투자판단 3단계(6개월 기준) 15%이상→ 매수 / 15%~15%→ 중립 / -15%미만→ 매도